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관광 당일형

1. 목적 및 배경

○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생태화 역사문화자원을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이용으로 자연보전의식 함양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생태관광

○ 프로그램명 : 바다가 숨쉬는 마을로 떠나는 여행

○ 대　　상 : 일반

○ 운영기간 : '20.06.22~20.12.31 (매주 토요일 10:00~16:00)

○ 운영형태 : 당일형

○ 장　　소 : 남해 금산, 앵강만 숲, 이락사

○ 주요내용 : 국립공원의 자연, 이락사 역사 해설프로그램 참여

○ 소요예산 :

○ 참 가 비 : 무료(체험료 발생시 개인부담)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홈페이지 기재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자체 만족도 설문조사

<일정표>

시기	시간	소요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6월 ~12 월	10:30~10:50	10분	- 오리엔테이션 및 인사나누기 - 안전수칙과 일정 설명하기	초양탐방 지원센터
	10:50~11:30	40분	- 한려해상의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 해설청취 - 개인 사진촬영 시간 가지지	초양탐방 지원센터
	11:30~12:00	30분	- 남해로 이동	남해
	12:00~13:00	60분	- 점심식사 및 금산으로 이동	인근 식당
	13:00~14:00	60분	- 금산의 숨은 보물찾기 해설청취 - 금산에서 자연 즐기기	남해금산
	14:00~14:30	20분 (10분)	- 앵강만 숲 이동(10분소요) - 석방렴과 노도 이야기	앵강만
	14:30~15:10	40분	- 앵강만에서 이락사로 이동	앵강만 ~ 이락사
	15:10~16:10	60분	- 이순신의 혼이 담긴 노량해전 역사 해설 청취	이락사
	16:10~16:20	10분	- 마무리 및 인사	이락사 주차장

〈단위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생태관광

한려해상의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생태관광)

활동장소	사천.남해 일원
소요시간	4~6시간 (식사시간 포함)
참가대상	일반
참가인원	20명 / 해설사 1명
작 성 자	자연환경해설사 곽현주

활동목표	•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본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변의 지역과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 갖기
준비물	• 영상자료 및 기타 사진자료, 현수막
유의사항	• 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차량에 유의 • 개인 행동 하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 **인사** – 자연환경해설사와의 인사 및 일정소개 – 국립공원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소개 – 안전교육 및 일정소개 (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10분
전개 (주요 일정)	• **한려해상의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 – 창선·삼천포대교 이야기 – 주변 섬 이야기 (유·무인도) – 남해안만의 특별한 어업방식 죽방렴 • **남해 금산 이야기** – 금산의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서 • **앵강만 숲 이야기** – 석방렴과 노도 이야기 • **이락사** – 이순신의 혼이 담긴 노량해전	40분 60분 20분 22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자연보전' 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주변정리**	10분

시나리오	인사 및 일정 설명하기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에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보통 넓은 바다를 보기 위해 오시는 곳이죠? 어떠세요? 무엇인가 마음이 설레이고 뻥 뚫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간략하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양탐방지원센터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기자기한 섬 이야기의 해설을 듣고 남해로 이동하여 식사(상황에 따라 업체 변경됨)를 하고 금산으로 이동하여 금산의 생태계와 역사문화에 관한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금산의 일정이 끝나면 약 10분정도의 거리에 앵강만 숲으로 이동하여 죽방렴과 비교되는 석방렴과 노도 이야기를 듣고 이락사로 이동하여 이순신의 혼이 담긴 노량해전의 해설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안전에 관한 간단한 주의수칙만 알려드리고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개개인의 자유가 조금은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어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탐방하는 곳이 자연과 맞닿은 곳이라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시고요 특히 금산을 탐방 하실 때에는 뱀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 지정된 장소로만 이동하시고 통솔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초양탐방지원센터에서 자 지금부터 국립공원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곳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네 번째 국립공원(해상공원으로 첫 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관리 하는 곳입니다. 혹시 한려해상이란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배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도 들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통영시의 한산도와 여수 오동도 두 지명의 앞 글자를 합하여 '한려'라고 이름 붙여진 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한산도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300리 아름다운 뱃길과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주·금산지구, 남해대교지구, 사천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통영·한산지구 거제·해금강지구를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여수 오동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삼천포와 사천으로 행정구역이 분리 되어 있다가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되어 사천시로 되어졌습니다. TV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중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죠? 해설이 끝날 때 그 유래에 가장 근접하신 분께는 제가 작은 기념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설에 집중을 해주시면 힌트가 나올수도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경관의 가장 먼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삼천포와 사천의 다리 이름 우야낀데?

여러분들 건너온 다리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 다리는 3개의 섬(모개섬·초양도·늑도)과 5개(삼천포대교·초량대교·늑도대교·단항교·창선대교)의 다리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으로 창선·삼천포대교라고 주로 불리며 건설교통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되어졌으며 총 3.4km 구간에 이릅니다. 밤이면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들로 바다에 반사되어 도시의 불빛과 어울려 다양한 야경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전국 9대 일몰지의 하나로써 해안에서 보는 바다와 섬을 건너 남해 서산에 지는 저녁노을이 일품인 사천 실안 낙조는 부채꼴 참나무 말뚝으로 만든 죽방렴과 섬, 바다 그리고 일몰과 함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곳에는 다 이름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각자 다리마다 이름이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릴 적에 언론에서 접했던 기억으로는 구역상 남해와 삼천포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각자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역느낌이 없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현재의 섬의 이름으로 다리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창선대교)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에 떠있는 섬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굴뚝이 보이고 연기가 나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 저곳이 무엇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입니다. 저곳의 행정구역은 고성군 하이면인데 그

리고 이제는 사천시인데 이름은 그대로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불립니다. 석탄을 연료로 하여 2020년 5월부터 1.2호기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환경영향적으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의 섬은 사천지구에서 제일 큰 섬인 신수도입니다.



(신수도)

주변의 섬과 크고 작은 산봉오리가 모두 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신두섬으로 불리기도 하고 삼천포의 진산 와룡산 용머리가 물속에서 솟아올라 '신두섬', 주변의 수심이 깊어 심수도로 불리다가 '신수도'로 변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지구에서 가장 큰 섬으로 200여 가구에 3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신수도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정기 도선이 하루에 6번 운행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웨이 힐링고도라는 이름이 붙은 둘레길은 총 5.4km 구간으로 해안을 따라 천천히 걸어서 3시간이면 섬 전체를 둘러볼수 있습니다. 북쪽 해안길로 접어들면 하루에 두 번 바닷길로 연결되는 섬, 추도가 있으니 힐링이 필요하다면 신수도로 여항을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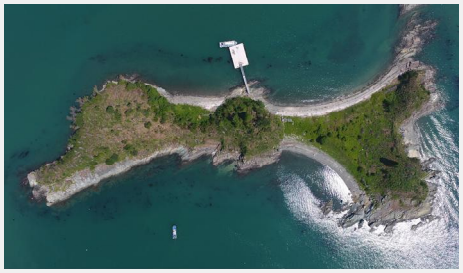
그 앞으로 섬이 3개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섬은 씨앗섬이라고



(씨앗섬)

불리며 이곳은 2017년부터 자연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 작은 섬들을 보호하고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장구섬과 아두섬, 소치도, 세존도 등의 무인도 5곳의 보호구역은 2035년까지 탐방객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씨앗섬의 오른편에 있는 섬은 장구섬으로 섬의 모양이 장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같지만 한자를 풀이해보면 길 장(長)에 입 구(口)라 해서 섬의 모양이 긴 입처럼 생겼다하여 장구섬이라고 합니다. 섬 가운데 잘록하게 형성된 부분에는 순비기나무, 변행초, 해홍나물, 갯방풍 등 해안식물이 군락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아두섬이 있습니다.



(아두섬)

거위 머리처럼 생겼다하여 거위 아(鵝)를 써서 아두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타 모양처럼 생겼다하여 기타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성지도를 보면 거위의 부리처럼 보여 거위 아를 사용해서 아두섬이라고 불려지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아두섬은 약 2억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어 천연기념물 제 474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룡알 둥지 및 용각류, 수각류와 같은 공룡 보행렬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섬전체가 공룡의 서식근거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화순, 보성과 비교될 정도로 공룡알 화석들이 둥지를 이루고 있고 공룡뼈 화석은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서 고생태학적 연구가치가 높고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해 아쉽게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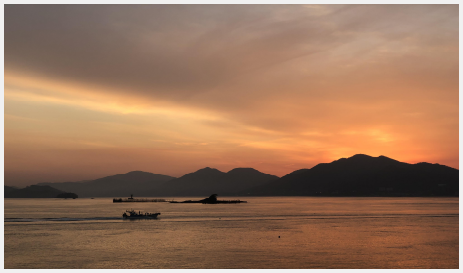
(공룡 화석의 모습)

혹시 아두섬 주변에 작은 여러 바위섬이 보이시나요? '여'라는 것인데요 혹시 '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는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물이 빠지면 보이는 바위섬을 말합니다. 배 운항 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저런 여를 피해 무사히 항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등대가 있답니다.



('여'에 걸려있는 선박)

저 섬 한번 보세요 생긴 모양이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을질 때의 코섬)

사람이 바다에 누워 코만 내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코섬이라고 불립니다. 파도의 침식 때문에 앞쪽이 쓸려나가 사람의 코처럼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섬에는 '해식애'와 '파식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식대와 파식대 설명)

코섬 뒤편으로 보이는 둥근원을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섬이 보이죠



(솔섬)

저 섬은 솔섬이라는 섬입니다. 섬 전체가 소나무(해송)로 덮여 있어 솔섬이라 부릅니다. 이 섬도 다음에 설명드릴 학섬과 같이 해식해와 파식대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환경부에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은 학이 많이 살았다



(윗섬이 초양도 아래가 학섬)

하여 학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양이 물위에 뜬 물고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부여도 하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지금은 학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소나무와 후박나무군락이 있고 해식애와 파식대 같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환경부에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이 섬은 초양도라는 섬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기 뒤편으로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돌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군마의 풀을 길렀다하여 초양도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늑도나 초양도는 다리가 놓아지면서 섬으로서의 매력이 줄기는 했지만 남해를 가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거쳐 갑니다. 예전에는 유채꽃밭이 앞쪽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쿠아리움 건설중으로 예전모습을 보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섬은 늑도라는 곳입니다.



(늑도)

사천지구에서 2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섬으로 94가구에 240명 정도가 어업과 상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늑도를 구라도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멀리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말의 굴레(勒 : 굴레 늑)와 같다하여 붙여졌습니다. 이후 굴레를 뜻하는 한자 '늑'자를 따서 현재까지도 늑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동기시대 패총, 무덤, 주거지, 각종 토기류(중국계 경질토기, 일본계 야요이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한나라시대 화폐 반량전, 거울 등이 출토되면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 사적 제 450호로 지정되어 섬 전체가 문화유적으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이 2000년 전에는 아마도 고대국제 무역항이 아닐까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건너 뒤편으로 이동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맞은편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실안 낙조는 그 어떤 장면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멋집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감상 해보는 것도 한려해상을 여행하는 중요 포인트일 것입니다.



(실안 낙조와 죽방렴)

여러분들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은 신도라는 섬입니다.

섬의 형태가 무명조개처럼 생겼다 해서 한자 무명조개 신(蜃)자를 따서 신

도라 합니다. 예부터 박식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섬인데, 삼천포 초등학교 신도분교는 안타깝게 단 1명의 학생만 남아 있다가 2013년에 폐교되었다고 합니다.



(신도)

이곳 신도는 천연기념물 제 330호로 지정된 귀여운 수달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죽방렴의 그물을 찢거나 어장안의 고기를 약탈(?) 하는 수달에 그리 달가운 동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뒤편으로 신도보다 조금 큰 섬인 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마도)

섬의 형상이 새모양을 하고 있어서 '새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수록된 '전어의 고장' 답게 이곳에서 잡히는 가을전어 역시 빼어난 맛을 자랑합니다.

마도에서는 예로부터 전어잡이를 위해 불리어 지던 노동요인 마도갈방아소리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전승이 어려운 어업 노동요가 온전히 계승되어서 귀장한 문화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생활양상을 재현하여 협동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통문화의 현재적인 전승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독특한 유래와 전통 때문에 2004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면사에 먹을 먹이는 모습)



(마도 갈방아소리 재현 공연모습)

갈방아란 갈을 찧는 방아라는 뜻이고 갈은 면사 그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그물에 막을 입히는 재료를 뜻한다. 마도 어부들이 전어잡이용 면사 그물에 갈을 먹이기 위해 작업할 때 부르던 여러 소리들을 갈방아소리라고 한다. 그리고 소나무 껍질을 절구에 빻아 삶은 물에 그물을 넣어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섬이 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섬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종이입니다?



(저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섬은 한지를 만들던 닥나무가 많아서 '닥섬' 이라고도 하며 (닥나무 저 楮)를 써서 저도라고도 부릅니다. 삼천포 실안선착장에서 뱃길로 3분거리에 있으며 육지와 가까워서 주말이면 많은 낚시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착장 주변에서 죽방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남해안에만 있는 전통 어로잡이 방식의 설치구조물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죽방렴입니다.
죽방렴은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고 사천, 남해 지족에 약 45개 정도가 있습니다. 죽방렴을 '대나무 어사리' 라고도 하는데 어사리는 그물을 쳐서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살이 빠르며 수심이 얕은 곳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대나무 말뚝을 V자 형태로 촘촘히 박아 물고기들이 통발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업법으로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원시어업방법입니다.
다양한 어종이 잡히지만 특히 죽방렴에서 잡은 멸치는 남해를 대표하는 상품이며 우리나라 멸치 중 가장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멸치의 상품이 좋기도 하겠지만 8번을 삶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니 그 노력의 비례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험을 원하시면 남해 방향으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남해군 지족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죽방렴 체험장도 있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체험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현장교육이 될 것입니다.



(삼천포대교와 죽방렴)



(죽방렴 체험)

자 이제 남해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시고 금산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 도착 후 탐방지원센터 앞에서부터 이동)

금산의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서 (1코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천천히 둘러보면서 올라갈 예정이니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남해 금산은 남해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며, 빼어난 자연조각품과 경관으로 아주 유명하며, 따뜻한 해안성 기후대에 속해 있지만, 남쪽 해안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활엽낙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고 희귀식물인 히어리, 칠보치마, 대흥란, 석곡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계곡부의 울창한 숲지대에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멸종위기2급인 팔색조를 비롯해서 긴꼬리딱새와 같은 희귀 여름철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 주신 여러분들께 이곳 남해 금산의 보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물을 찾아 움직여 볼텐데요 다들 이동하는 동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방할 코스는 여기서부터 보리암과 금산 정상으로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보리암 매점 앞을 지나 금산 정상을 오른 후, 보리암까지 탐방하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대표적인 식물들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m 이동 지점, 데크 앞)

이곳에 보시면 금산 정상부를 대표하는 키가 큰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데크 뒤편에 사슴뿔처럼 아름다운 수피를 가진 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무는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는 잎이 떨어진 겨울엔 비단처럼 곱고 광택이 나는 사슴뿔을 닮은 밝은 갈색의 얼룩무늬 수피가 금방 눈에 띠고, 여름에는 꽃이 귀한 시기에 동백꽃을 닮은 하얀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노각나무 수피의 모습)



(노각나무의 꽃이 핀 모습)



(멀리서 본 노각나무 꽃 핀 모습)



(노각나무의 나이테)

이렇게 키가 크고 아름다운 노각나무지만 성장이 너무 느려 뒤에 보이는 지름 20cm 정도의 노각나무는 수령이 80세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느리다 보니 노각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변형이 잘 안 되어 예로부터 가정집에서 제사 때나 절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기의 최고급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벌목을 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곳 남해 금산과 같이 100년 이상 된 노각나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숲이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사진설명: 노각나무와 소나무의 나이테 비교. 노각나무의 나이테가 훨씬 촘촘하여 성장속도가 느림을 알 수 있다.)
노각나무가 더 소중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노각나무는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한반도 특산종입니다. 그래서 학명도 korea가 들어간 Stewartia koreana입니다.
사슴뿔을 닮은 독특한 무늬의 수피와 큼직한 하얀 꽃이 아름다워 잘자란 아름드리 노각나무는 사시사철 탐방객의 눈길을 끄는 멋진 나무이며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깨우쳐줍니다. 노각나무 아름다움의 진면목을 우리가 오래전에 알았다면 우리 주위의 많은 산들에서 쉽게 아름드리 노각나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국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노각나무 숲들이 잘 보존되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많은 노각나무 숲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바램으로 노각나무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00m 이동 지점, 오르막길 중간)
오르막길 양옆으로 수피가 약간 갈라짐이 거의 없고 어두운 회색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때죽나무입니다.
5월이 되면 하얀꽃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진한 향기가 나는데 꽃잎이 두툼하고 하나로 연결된 통꽃으로 일주일 이상 피어있어 탐방객들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때죽나무 꽃이 활짝 핀 모습)


(때죽나무의 꽃이 열리기 전)

때죽나무는 이름의 유래가 독특합니다. 꽃이 지고나면 그 자리에 콩알보다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그 열매를 으깨어 연못이나 냇가에 뿌리면 물고기들이 둥둥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나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600m 이동 지점, 바다 조망)

자 다음 보물을 찾아 움직여 볼까요....



(꽃이 핀 모습)



(연분홍 빛 꽃 모습)



(사스레피의 열매모습)

여기에서는 남쪽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늘 푸른 나무인 사스레피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스레피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지만 훌륭한 생존전략으로 금산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스레피나무의 멋진 생존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 생존전략은 바로 꽃향기입니다.

꽃이 피었을때 사스레피나무 옆을 지나면 찌릿한 화장실 또는 거름냄새가 강하게 코를 자극합니다. 이 때 코를 막지 않고 계속 숨을 들이쉬면 향이 좋은 꽃향기도 섞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스레피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이른봄 일찍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다양한 향기를 섞어 놓은 듯한 꽃향기를 뿜어내서 파리, 나비, 벌 종류를 한꺼번에 모두 초대해 꽃가루받이 확률을 높여서 가을이면 가지에 작은 콩알 만한 까만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열매는 먹을 것이 부족한 한 겨울에 성숙하여 숲속에 살고 있는 새들과 설치류의 귀중한 먹이가 되고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통해 멀리멀리 씨앗을 퍼트립니다. 1월, 2월이면 사스레피나무 아래 낙엽이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들쥐들이 낙엽 사이에 떨어진 사스레피나무 열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런 쥐들을 잡기 위해 사스레피나무 근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멸종위기동물 2급인 삵을 이 곳 금산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원 안이 삵의 모습)

남해안 바닷가 산이면 어디든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스레피나무지만 먹이가 귀한 1,2월에 많은 숲속의 동물들에게 소중한 열매를 주렁주렁 만들어 숲생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스레피나무가 쓸데없는 잡목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 쉽게 제거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로 사스레피나무가 가득차 겨울에도 진녹색인 빽빽한 숲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스레피나무의 생태적인 중요성을 알고 소중한 나무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이 탐방로에서 확 트인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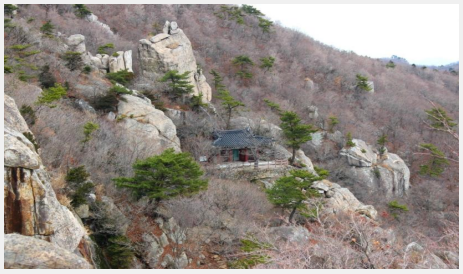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

여러분이 내려다보고 있는 저기 모래해변과 솔숲 방풍림이 아름다운 바닷가는 남해군에서 자랑하는 상주은모래비치라는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의 섬은 목섬이며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고 해서 목섬입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이곳보다 더 잘 보이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m 이동 지점, 보리암 매점 앞)

그럼 이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장소보다 더 넓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금산의 첫 번째 보물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태조 기단)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바위가 둘은 서 있고 하나는 누워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바위는 삼불암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에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렸다는 설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바위가 미륵불과 같다 하여 삼불암이라고 하는데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던 마지막 날 새벽에 그 당시에는 누워있던 세 개의 바위 중에서 두 개가 일어서고 마지막 바위가 일어설 찰나에 뒤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 기도를 멈추자 마지막 바위가 일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세 개의 바위가 모두 일어섰다면 대국(지금의 중국)의 천자가 될 운명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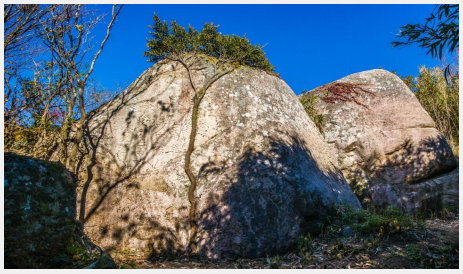
다고 합니다.

벌써 하나의 보물은 찾았는데 오늘 몇 개나 찾을 수 있을지 볼까요... 여러분 저 바위 보이시나요... 모양이 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꼭 윗사람에게 절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두 번째 보물, 대장봉과 형리암입니다.


(대장봉과 형리암)

대장봉은 보리암 바로 뒤에 우뚝 솟은 큰 바위로서 웅장하고도 위엄있게 창공을 찌르고 서 있는 모습이 대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아래 대장봉을 향해 마치 허리 굽혀 절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는 예전의 지방 관리들 이름을 따서 형리(刑吏)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상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보물이 있나 볼까요...? (이동 중)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숲의 대나무들은 신이대라고 합니다. 예전 전쟁을 할 때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대 숲 사이로 금산이 만든 멋진 분재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커다란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보이시죠? 둥글둥글한 바위와 어울려 꼭 머리를 감싼 머리카락처럼 보이기도 하는 멋진 자연분재입니다. 이 나무는 바위에 잘 붙어 자라는 줄사철나무라고 합니다.


(줄사철나무)

그리고 여기 바위의 넓은 면을 보시면 빼곡히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금산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마음속 염원을 담아 자기 이름을 새기고 간 흔적들입니다. 이 석각들 중에서 오른쪽에 가장 크고 깊게 새겨진 이 석각을 대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사 조병현 (巡察使 趙秉鉉)'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순찰사는 지금의 도지사격인 관찰사가 겸직했던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이 석각은 1835년경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석각이 작은 글씨들의 석각과 겹쳐져 있습니다. 기존의 석각위에 더 크고 깊은 글씨로 덧새겼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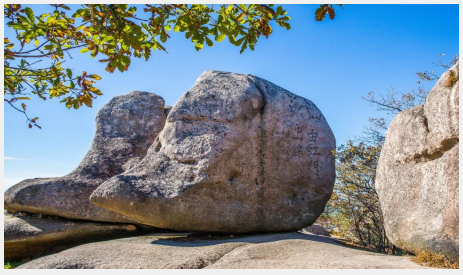
알 수 있어서 씁쓸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바위에 오랜시간 동안 석각들이 생기면서 발생한 자리다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갈나무 원거리) (신갈나무 근거리)

정상에 가까울수록 자주 보이는 이 나무는 신갈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낙엽이 지는 참나무가 여섯 종류가 살고 있는데 도토리모양과 나뭇잎 그리고 표피로 나무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신갈나무는 여섯 참나무 중에서 떡갈나무 다음으로 잎이 크고 잎에 항균 기능이 있어 예전에 신발 바닥에 깔아 사용했다고 해서 신깔나무라고 하다가 발음하기 편하게 신갈나무로 불리게 됐답니다.

어느덧 정상 바로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왼쪽 버선 모양의 바위가 두개 보이시죠... 세번째 보물 문장암입니다.
문장암은 생긴 모양이 꼭 신발을 닮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이곳에 와서 목혜(나막신)를 벗어 놓고 가서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새겨진 글씨는 유홍문상금산(由虹門上錦山) 즉, “홍문(쌍홍문)을 거쳐서 금산에 오르다” 또는 “홍문이 있어서 금산이 으뜸이다”라는 의미로 조선 중종 때 주세붕 선생 일행이 남겼다고 합니다.



(문장암)

자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망대가 네번째 보물 남해금산의 정상인 망대입니다.



(금산 정상 망대)

그럼 이제 망대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금산 정상(망대)은 해발 705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변의 육지와 도서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중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봉수대가 설치되었고 전국 5개 봉화가 전달되는 거선 중 제2거선에 속하는 최남단의 봉수대였다고 합니다. 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 불을 지폈던 5개의 연대가 있었고, 위급한 정도에 따라 불의 수를 1화-5화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금산에서의 신호는 창선 대방산으로, 이것은 다시 삼천포 각산 혹은 여수 돌산 봉수대로 연락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감싸듯 어깨한 섬과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해안선, 잔잔한 물의 흐름은 큰 호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통영시에 속하는 사량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 하며, 약 1.5㎞ 의 거리를 두고 윗섬과 아랫섬, 수우도의 세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윗섬에는 육지의 산에 비해 높이나 규모는 작지만 산행코스나 암릉미에 있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지리망산, 일명 '사량도 지리산' 이 솟아있다.


(사량도 상도~하도 다리)

저기 앞에 옆으로 길다란 섬이 보이십니까? 네~ 욕지도라는 섬입니다.


(욕지도)

욕지도는 모두 1000여 가구의 주민이 살만큼 규모가 큰 섬이어서 여름 한때 몰려오고, 몰려가는 피서지가 아닌, 사시사철 언제 찾아와도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섬이기도 하지요. 욕지(欲知)는 “알고자 하거든"이라는 뜻으로 섬 이름처럼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욕지도 왼편으로 더 가까이 삼각뿔 형태로 보이는 섬은 두미도입니다.


(두미도)

두미도는 머리두에 꼬리미 자를 사용하여 위에서 보면 머리에 꼬리가 붙어 있다는 뜻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올챙이의 모습과 더 비슷한거 같습니다.

오른편으로는 가까이 소치도(환경부 특정도서 제34호)가 있고, 멀리는 수평선 바로 아래 금산 38경의 하나인 세존도(환경부 특정도서 제33호)가 있습니다.



(소치도) (세존도)

세존도는 석가세존이 금산에서 돌배를 타고 쌍홍문을 통과해 내려와 이 섬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상주 해수욕장에서 직선거리로 25.68km나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좋으면 아득히 세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한복판에 원형으로 된 해상 동굴이 있고 섬 전체가 바위이며 나무도 식수도 전혀 없는 무인도(無人島)입니다. 남해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편에는 여수 쪽의 섬과 육지가 포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망대 바로 밑에 보이는 바위들이 문장대와 천마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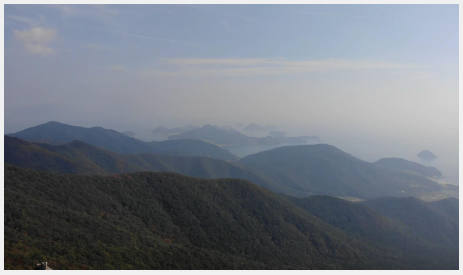

(멀리 보이는 문장대와 천마암)

문장대는 큰 바위 위에 놓여있는 조그만 네 개의 바위 모습이 네 명의 선비가 머리를 맞대고 글을 읽는 모습처럼 보인다하여 문장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천마암은 오른쪽에서 보면 돼지머리 같이 생겼으나 왼쪽에서

보면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꺼비 '마(蟆)'자를 써서 천마암이라고 부릅니다.

욕지도 방면에 집들이 많이 보이는 바닷가 항구가 미조항이며 남해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 그리고 먼 바다와 맞닿아있어 멸치잡이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조항은 미륵불(彌)이 도와주는(助)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망대에서 본 미조항)

여기까지 금산 정상에서의 해설을 마치고 헬기장 입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남해군은 삼자가 유명 합니다. 유자, 치자, 비자. 하지만 지금은 기상이온과 수익성 부족으로 유자 외 다른 나무들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유명한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도 현재는 다른 곳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만 지역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제 보물을 몇 개나 더 찾을지 움직여 보시죠...

금산 정상부에는 봄이면 군락을 이루며 피는 대표적인 두가지 키작은 풀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레지가 올라오는 모습)



(얼레지 군락지)

첫째가 3월 하순부터 4월초까지 낙엽이 지는 나무 아래로 땅바닥까지 햇볕이 들어올 때 추운날씨에도 넓적한 잎을 내고 수만송이 연보라빛 꽃을 피우는 얼레지 꽃밭입니다. 겨울이 끝나기 바쁘게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운 수많은 얼레지들은 나무에 새순이 돋아 땅바닥에 닿는 햇볕이 대부분 가리워질 때쯤이면 벌써 열매를 맺어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을 나누어 살아가는 식물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족도풀입니다.



(개족도리풀)

하트 모양의 잎에 흰얼룩무늬가 있는 개족도리풀은 심장 모양을 닮은 잎새가 반으로 접혀 올라와선 이내 펼쳐지고, 그 잎을 살짝 들춰 보면 쵸콜릿색의 고운 꽃이 땅바닥에 붙을 듯 숨어서 피어 금산 정상부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족도리풀이라고 할까요?

꽃의 모양이 예전 전통혼례때 신부가 머리에 쓰던 족두리를 닮아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잎에 무늬가 없으면 족도리풀, 흰 무늬가 있는 것은 개족도리(섬족도리풀)이라고 합니다.

금산에는 이른 봄이 되면 다른 나비보다 빨리 활동하는 애호랑나비가 있는데, 호랑나비보다 크기가 작으며 날개에는 노란색, 주황색, 검정색 무늬가 있습니다. 애호랑나비는 개족도리풀이나 족도리풀 잎 뒷면에 알을 낳으며 깨어난 애벌레가 이 잎만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개족도리풀이나 족도리풀이 군락을 이루는 곳에서 애호랑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애호랑나비)

이곳의 개족도리풀이 사라진다면 예쁜 애호랑나비의 모습도 보기 힘들겠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하나의 생명체들은 생태계의 많은 구성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립공원에서는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취해서는 안되며, 작은 풀꽃 하나, 곤충 한 마리도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보물을 찾아서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큰 바위가 보이시죠... 화엄봉이라고 합니다. 화엄봉 바로 옆 이 곳은 금산, 보리암 너머로 떠오르는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화엄봉을 자세하게 보기 힘드니 보리암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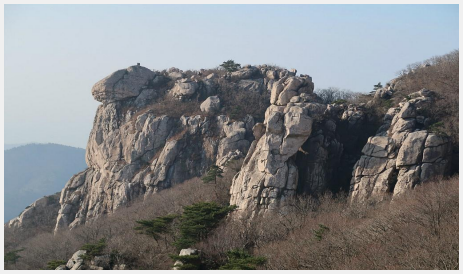
(마무리)

이제 여러분들은 다섯번째 보물 보리암에 도착했습니다. 남해금산의 대표적인 보물로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리암에서 볼 수 있는 화엄봉, 일월봉, 상사암 등 대표적인 바위들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일월봉과 화엄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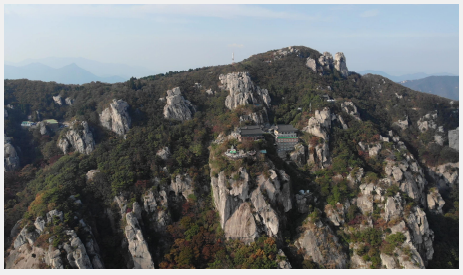
11시 방향을 보시면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던 화엄봉입니다. 화엄봉은 대장봉과 농주암의 왼쪽에 있는데 바위 모양이 '화엄(華嚴)'의 '화(華)'자 모양이라고 해서 화엄봉이라 하고 원효대사가 이 바위에서 화엄경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0시 방향을 보시면 화엄봉 왼쪽에 세 개의 바위가 층암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맨 위의 바위가 보이지 않아 일(日)자 모양으로 이단이고 탑대에 올라 전체를 멀리서 보면 월(月)자 모양으로 삼단으로 보여 일월봉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월봉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8시 방향 쯤에 거대한 동물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듯한 우람한 바위가 보이시나요... 바로 상사암입니다.



(보리암에서 보는 상사암)

이 웅장한 상사암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전라남도 돌산에 살고 있던 돌쇠라는 총각이 남해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가 살고 있는 안집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돌쇠는 시름시름 앓다가 금산의 제일 큰 바위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있는 찰나에 그 사실을 알고 안집 여자가 바위에 올라와 상사를 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주 로맨틱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의 보물들에 대해 이야기 들려 드렸습니다.
그럼 금산을 대표하는 보리암의 해설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정상부에 가깝게 위치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보리암은 신라 신문왕 3년(683년)에 원효대사께서 창건하고 수도하던 절로서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신도들이 찾는 곳이며, 계절 따라 다르게 변하는 금산의 경치를 보기위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드론으로 본 보리암 전경)

금산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보리암 중수지에 의하면 금산의 옛 산명을 보타산이라 불렀는데 산 정상부가 거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원효대사가 찾아와 초막을 짓고 수도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후, 그 자리에 절을 짓고

빛 광(光)자를 써서 보광사라 하고, 산 이름을 보광산(普光山)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큰 뜻을 품고 전국 명산을 찾아 다니며 기도를 드렸는데 뜻 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곳 보광산에서 100일 기도를 드린 후에 조선을 창건하였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 산에 보은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궁리하던 끝에 영구불멸(永久不滅)의 묘안으로 보광산에 비단 '금(錦)'자를 하사하여 금산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 후 1660년에 현종이 이 절을 왕실의 명복을 비는 축원당으로 삼으면서 보리암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리란 범어의 보디에서 음을 딴 것으로 한자로 표기하면 보제(菩提)라 읽을 수 있으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깨달음을 얻는 지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암은 최고의 깨달음을 위해 수도하는 도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암의 주불전인 보광전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75호로 지정된 목조 관세음보살좌상 불감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목조 불감은 향나무에 금분칠이 되어 있으며, 중앙에 관세음보살좌상을 모시고 왼편에는 남순동자를 오른편에는 해상용왕을 두고 있습니다.


(보광전)


(목조 불감)

보광전 왼편에 있는 종각을 지나 아래 계단으로 내려오면, 커다란 해수관음보살상이 세워져 있고 도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된 보리암전 삼층석탑이 있는 탑대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 드린 3대 기도도량 혹은 관음도량은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는데요. 이는 경전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 인도의 보타낙가산이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음보살과 관련된 사찰은 바닷가에 위치하거나 내륙이더라도 물과 관련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며 여기 보리암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수관음상)

그럼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에 자신 있으시고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관세음보살은 인간세계를 보고 듣고 살피는 보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보살상을 보셨다면 직접 비교해서 찾아보세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특징으로는 손에는 감로수가 든 정병을 들거나 연꽃을 잡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에는 스스로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불의 입상이나 좌상이 들어있는 보관을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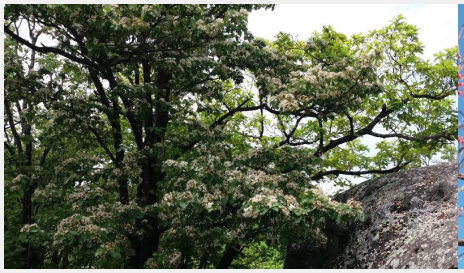
이 해수관음보살상은 1996년도에 남해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탑대에 모셔졌으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헬기로 이송하여 봉안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줄이구요. 이제 이 탑대의 주인공인 석탑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삼층석탑)

보리암전 삼층석탑은 가락국 김수로왕의 비 허태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파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으나 돌 성분으로 보면 금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이 대부분입니다. 석탑의 양식은 창건 시기인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 양식에 가까워 중간에 수리 또는 보수가 되어 형태가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삼층석탑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단부에 나침반을 놓아보면 놓는 위치에 따라 동서남북 자침의 방향이 달라져서 고대의 전설이 깃든 석탑을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 (나침반으로 자기혼란 관찰)

오늘의 해설을 마치기 전에 보리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멋진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팥배나무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5월이면 배꽃처럼 나무 전체가 하얗게 보일정도로 많은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은 모두 떨어지고 밝은 붉은빛을 띠는 팥처럼 생긴 열매를 가지마다 한가득 매달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가 붉은색으로 읽어가는 가을이 되면 이 팥배나무로 많은 새들이 몰려들어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팥배나무 흰꽃이 핀 모습)



(팥배나무 열매)

여러분 오늘 귀중한 자연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경관과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동하는 동안 보셨던 금산의 멋진 보물들 기억이 나시나요? 자연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했지요.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한분한분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삼월에는

사스레피나무의 지릿한 향을, 4월 중순에는 온산을 뒤덥기 시작하는 연한 신록의 아름다움을, 7월에는 만개한 노각나무를, 11월초에는 비단을 둘러친 듯한 금산의 단풍을 더 멋지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우리의 후세들이 더 멋진 금산의 풍경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앵강만 숲으로 이동을 위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앵강만에 도착하여



(앵강만)



(석방렴)

여기는 앵강만이라고 하는곳입니다.
오랫동안 마을이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은 반농반어로서 삶을 꾸려오면서 수백년을 살아왔습니다. 앵강 이란 독특한 지명유래는 “꾀꼬리 앵, 큰내 강”으로 “꾀꼬리 울음소리 들리는 강같은 바다” 라는 뜻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내리는 밤 꾀꼬리가 밤새 울자 강물이 넘쳐 바다로 흘러가 꾀꼬리가 바다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설화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 오지만 정확한 뜻은 알길이 없습니다.
앵강다숲(신전숲)은 본래 지명은 신전숲이었으나 10여년전 행정에서 이 곳을 개발하면서 붙여진 새로운 지명입니다. 신전숲(앵강다숲)은 400여년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어 방풍림으로 만들어 정성껏 가꾸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닷가에 위치한 신전숲에는 30-40년 전에는 이 곳에 “전투경찰대”라는 군부대가 수천그루의 나무 숲 속에 주둔하고 있었고, 민간인들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를 한 곳이라고 합니다.
남해군에서는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을 만들고 숲에는 나무도 보식하고 꽃무릇 등 다양한 꽃도 많이 심어 연인이나 가족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풀장과 잔디 운동장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놀고 숙박하기엔 참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 지역활성화센터 는 지난 2010. 6. 30 준공하여 많은 관광객이 싼 값에 바다 체험과 숲체험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숙박하고 쉬었다가 갈 수 있으니 한번 체험을 경험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연락처 사무국장 010-8552-4603)

(바닷가쪽으로 이동하여)

저기 보이는 바닷가에 반달모양으로 이루어진 돌더미가 보이시나요?
혹시 저기 돌로 이루어진 곳이 무엇하는 곳인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에~~

맞습니다. 이름은 석방렴이라고 하고요 원시어로 시설로 죽방렴과는 또 다른 느낌의 어로잡이 시설이죠? 석방렴은 독살, 돌살, 원담, 쑤기담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안에 돌을 쌓아 밀물에 고기가 같이 들어 왔다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담에 남은 고기를 잡는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어로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두 번 썰물 때에 맞추어 대바구니와 뜰망을 가지고 어로 장소로 갑니다. 물이 고인 곳으로 가서 뜰망으로 고기를 건져 대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고기가 많아 보수를 해가며 유지를 해왔지만 지금은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고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점점 훼손 되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방렴과 석방렴의 공통점은요???
예 맞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 고기잡이 방식이라는 거죠
저기 멀리 보이는 섬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섬중의 섬 노도라는 곳입니다. 바라보이는 모양이 삿갓을 닮아 삿갓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전 노를 생산, 수리하던 곳이라고 해서 노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 노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해서 붙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서포 김만중과도 연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많은 섬들이 조선시대때 유배지였습니다. 서포는 강원도 금성과 평안도 선에 이어 세 번째 유배지 남해로 왔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가장 먼 땅인 동시에 천혜의 유배지였던 남해 1689년부터 3년간 유배생활을 하고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곳으로 서포가 죽은 후 1692년(숙종 18년) 4월부터 9월까지 묻혔던 곳이라는 포지석이 세워져 있고 마을 뒤편으로 유배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초옥터와 우물, 가묘가 있답니다. 초옥은 고증에 의해 다시 지어져 안타깝지만 우물은 그가 직접 팠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라 정기적인 배편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013년 8월부터 17톤급의 정기도선 노도호가 운행되어 그간의 불편함을 덜고 있다고 합니다. 벽련포구에서 설렘 한가득 뜰든 기분으로 노도호를 탑승하여 섬을 한바퀴 둘러보는 것도 좋은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남해를 다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생태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이락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사에 도착하여)
지금 도착한 이곳은 관음포에 위치한 이락사 순국공원입니다. 이순신을 모르시는분은 거의 없죠?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제일 먼저 뭍으로 옮긴 이곳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이락사(사적 232호) 안내판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라고 적혀 있네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텐데요 [관음포] 이것은 이곳의 옛 지명이구요,

[전물]전사의 높임말, [유허] 역사가 쓸쓸히 남아있는 곳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 돌아가신 역사가 쓸쓸히 남아있는 곳이란 뜻이 랍니다. 이젠 글귀가 이해가 되시나요? 54세의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곳이며 순국하신 후 처음 육지로 유해(유골)를 모신 곳입니다.



(이락사 안내판)

◎이락사

– 순조32년(1832) 제사를 지내는 단과비 비각을 세움 1965년 큰별이 바다에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대성운해''이락사' 액자를 경내에 걸었다

바로 옆은 돌계단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잘 보세요 보통 계단하고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네~~ 계단을 세 군데로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정자각이나 향교, 사당, 제실 등 위패나 신령을 모시는 곳에 참배를 할 때는 꼭 지켜야할 예법이 있는되요 '우입좌출'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해당하는 건물을 바라보며 반드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계단은 누가 지나가는 것일까요?

가운데 넓은 계단은 이순신장군의 영혼과 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오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임금이나 영의정 이상의 관직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운데 계단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난 다음) 여기 돌로 길이 잘 정비되어 있죠? 여기는 1950년대 남해군민 7,000명이 헌금을 모아 만든 참배길입니다. 남해군민들의 애석한 마음을 담아 이순신장군을 추모하는 참배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도로가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옆은 조금 내려앉은 모습이죠 혹시 이유를 아시는분 계실까요?

가운데 길은 이순신 장군이 걸어 다닌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을 생각하는 남다른 애정이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운데 돌 계단)



(참배길)

이충무공 유언석비

이순신장군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실분이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마라] 라는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한자로 옮기면 "전방급 신물언아사" (戰方急 愼勿言我死)입니다.

이 말의 참의미는 물론 적에게도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수군에게 이순신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싸움에서 장수가 죽으면 이기고 있던 싸움도 전세가 역전되어 전투는 장수를 잃은 쪽의 패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였기 때문에 우리수군이 이순신장군의 죽음을 알게 된다면 전투력을 잃어 전쟁에서 패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라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유언비석은 1998년 12월 16일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 당시 남해에서 태어난 해군참모총장 류삼남씨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전방급 신물언아사 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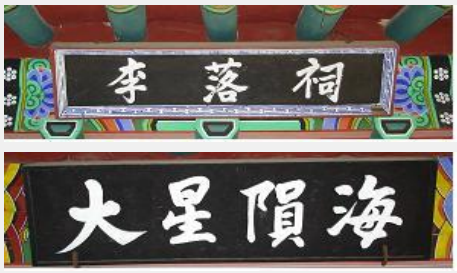
이락사 대성운해 현판

사당 입구에 이락사라는 현판이 보이죠? 특이한 점이 보이나요? 네~~ 한자를 한글 포기형식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고 있죠. 남해 노량에 위치한 충렬사 입구 현판도 마찬가지인데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충렬사'와 '이락사''대성운해'를 내렸다고 합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를 왜 이락사라는 현판으로 내리셨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의 '이락사' 는 명칭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의미가 좋지 않으니 관음사로 고쳐 쓰자는 주장도 있지만 수백 년이 흘렀고 국가에서 정한 명칭이니 그대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

니다.
하지만, 남해사람들이 이곳을 본래 지명인 '관음포'로 부르지 않고 굳이 '이락포'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충무공의 목숨이 이곳에서 떨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더욱 비장하게 느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눈이 띄는 저 현판보이죠 누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성운해' 라고 쓰여 있죠 입구에 있는 이락사현판과 마찬가지로 한글처럼 적고 있습니다.



(현판 이락사와 대성운해)


(대성운해 현판과 사당)

왼쪽으로 비와 비문이 있으며 사당 주위를 감싸고 있는 소나무들이 이곳에서 오랜 세월 사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성운해' '큰 별이 바다에 잠기었다'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를 알기위해 1598년 음력 11월 18일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이순신장군은 배 위로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이 원수들을 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킬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차수약제 사칙무감 - 此讐若除 死則無憾)라고 말이죠 달빛도 없는 깜깜한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임진왜란 사상 가장 격렬한 전투,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왜적은 관음포가 남해도를 돌아나가는 해로로 착각해 포구 안으로 진입하고 날이 밝자 포구 안에 갇힌 것을 안 왜군은 죽기 살기로 탈출할 길을 찾았다. 처절한 전투는 다음날 정오경에 끝이 났고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고 외치면 독전(전투를 감독하고 격려함)하던 이순신 장군은 적탄에 맞아 장렬한 최후로 전사했다
이곳 사당은 이순신장군의 순국 후 사당을 짓고 비문을 세워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리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순간까지 나라를 먼저 생각하신 이순신장군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곳입니다.
잠시 5초간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묵념을 마치고)
이곳 이락사는 아산 현충사, 남해 충렬사, 통영 충렬사, 여수 충민사 등과 함께 충무공의 넋을 기린 여러 사당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맨 처음 모신 곳으로 다른 사당과는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해 충렬사라고 가본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군요
남해 충렬사는 남해대교지구 밑 남해 노량에 있는데 그곳은 이순신장군이

3개월간 묻혔던 자리에 아직도 가묘가 남아 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충무공의 시신을 맨 처음 충렬사 자리에 100여일 안치하였다가 1599년 2월 11일 전라도에 위치한 고금도를 거쳐 외가동네인 아산 현충사 자리에 운구(시체를 넣은 관을 운반함)되어 안장(편안하게 장사지냄) 되었답니다.
이락사가 순국성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장군이 전사한지 234년이 지난 1832년 이순신 장군의 8대손인 이항권이 통제사로 부임하면서 유허비와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맨 처음 육지에 오른 곳이 바로 이곳 관음포인데, 그 당시 충무공을 기리는 유적으로는 여수의 좌수영대첩비, 해남 벽파진의 명량대첩비, 통영의 충렬사비, 순천의 충민사비, 그리고 남해의 충렬사비가 있었는데, 정작 충무공의 순국지인 관음포에는 기념비가 하나도 없어 충성을 다해 나라에 은혜를 갚은 충무공을 기리기 위해 홍문관 대제학 홍석주가 유허비 비문을 짓고 예문관 제학 이익희가 글을 써 유허비를 세웠습니다.

[참고자료]
◎ 홍문관 (국왕의 정책연구기관)
 -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 대제학 (조선시대 예문관과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 - 장관급
- 정2품직. 전임직이 아니라 타관이 겸임하는 겸직이다. 때로 종2품관도 임명함. 관직은 둘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두 관서의 대제학을 겸하는 것이 상례였다. 국가의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로 반드시 문과출신 중에서도 학문이 높은 사람을 임명했다.
때문에 대제학은 권위와 명망이 높았으며 문과출신 관료의 최고 영예로 간주되었다. 대제학이란 관직명은 고려 후기에 처음 등장했다. 고려시대에 문한을 총괄하는 지위는 예문춘추관의 대학사와 한림원의 최고 관원인 대학사였는데, 1362년(공민왕 11) 대학사를 대제학으로 고쳤다. 1314년(충숙왕 1)에는 보문관과 진현관에도 대제학을 두었다. 이후 대제학과 대학사의 명칭이 몇 번 반복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는 대학사로 했는데,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을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예문관의 최고 책임자를 대제학으로 했다. 홍문관의 대제학은 1420년 홍문관의 전신인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최고관으로 대제학을 둔 것이 시초이다.
 이 직제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으며 한말의 〈대전회통〉까지 가감없이 이어졌다.

◎ 예문관 (국왕 보좌기관)
-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 제학 (차관급)
- 조선시대 홍문관·예문관·집현전·규장각 등에 두었던 종2품직.
규장각에는 정1품·종1품직도 임명할 수 있었으며, 정1품직을 임명했을 때는 대제학이라고 했다. 홍문관과 예문관에 각각 1명, 집현전과 규장각에 각각 2명씩 두었다.
홍문관의 제학은 1463년(세조 9) 11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중국 송나라의 비서각 직제에 따라 정2품 대제학과 함께 종2품직으로 두었다. 예문관의 제학은 1401년(태종 1) 7월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정2품 대학사 2명을 대제학과 제학으로 고쳐 두었다. 제학은 모두 전임관이 아닌 타관이 겸직하게 했다. 명예로운 관직으로 이조의 추천과 현직 대제학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
뒤에 설치된 규장각의 제학은 각신이라고도 했다. 왕의 신임이 높은 인물이 주로 뽑혔고, 그 권한도 매우 컸다.

잠시 비각을 올려다 보세요 비각을 보면 처마아래 봉황이 보이죠
봉황의 집은 어디일까요? 봉황은 주로 대나무 숲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봉황이 있으면 주위에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한 번 둘러보세요 대나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대나무꽃은 60년~100년 만에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대나무꽃이 봉황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성시 되는 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참고자료]
대나무가 꽃이 피는 원인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기설로 60년이나 100년만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꽃을 피운다는 설,영양설로 영양분의 결핍이 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 유인설로 병충의 피해가 직접 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 화학성분의 변화설로 식물고유의 생리작용에 의해 꽃이 핀다는 설, 기후설로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 태양의 흑점설로 태양의 흑점이 증가하면 개화한다는 설, 계통설로 대나무의 개화가 잘되는 것과 잘되지 않는 계통이 있다는 설등이 있다.
대나무꽃이 피면 어떤 이는 대밭의 전체가 고사하기 때문에 불길한 징조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팬더곰의 서식시대에서 대꽃이 피면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는 팬더곰이 같이 아사하기 때문에 그 대책에 골머리를 앓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대나무의 열매의 결실로 들쥐들이 엄청나게 번식하기 때문에 그 퇴치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전국의 대밭에서 꽃이 개화되었다는 이야기도 그런 종류인 셈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봉황에 관한 장자의 고사 때문에 대꽃이 피면 굉장한 길조로도 여기는 모양이다. 대꽃이 자주 피기 때문에 봉황이 온다고 하여 지명도 봉황과 연관하여 붙여진 곳이 전국 곳곳에 있기도 한 모양이다.

대나무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 대나무의 열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다고 한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문헌인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 태종 강원도 강릉 대령산 대나무가 열매를 맺어 모양이 보리와 같고 찰기가 있으며 그 맛은 수수와 같아 동네 사람들이 식량과 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지봉유설>에는 지리산에는 대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 지방 사람들이 밥을 지어먹었고, 울릉도에서는 비축식량이 두절되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마침 대나무가 결실을 맺어 대나무열매와 산마늘로 연명하여 기아를 면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꽃의 개화나 그 결실이 반드시 흉조로 인식되지는 않은 듯하다.



(대나무꽃의 모습)

유허비를 보면 홍문관 대제학 홍석주가 글을 짓고 제학 이익회가 글을 썼습니다.

(유명수군도독조선국삼도통제사증의정부영의정시충무이공순신유허비)

유명이란 말은 명나라에 속한 조선국 또는 명나라의 조선국 등 논란이 많지만 단순이 명나라 시대의 조선국이라고 표현 하는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국사편찬위에서도 유(有)는 위대하다,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대명(大明)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명나라를 높이고자 한 표현이지, 조선이 명의 속국임을 부각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명의 수군도독으로 조선의 삼도수군통제사이며, 의정부 영의정으로 관직을 추증하고 충무 시호를 받은 이순신의 유허비라는 뜻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비와 한글 번역비는 비각 안에 있는 비를 그대로 옮겨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해석을 해주고 있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태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노량해전에 명나라 장수로 크게 기여한 진린장군 아시나요? 진린 장군이 조선에 오게 된 배경은 황제가 구원병을 보내자 황제의 명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온 것이지 조선을 진심으로 도와 일본을 무찌르고자 한 마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순신 장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순신장군을 진심으로 돕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순국 후 진린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보고문서)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천위지지재요, 보천욕일지공이라' 이순신 장군을 두고 한 말인데요, 그 뜻은 '하늘도 놀랄만한 재주가 있고 하늘을 깁고 해를 목욕시킬 만큼의 큰 공(나라를 바로 세운 공)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과 이순신장군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진린장군도 이순신 장군의 성품에 반해 극찬을 한거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솔길을 따라 첨망대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비석)

오솔길 입구 남해노량과 한려해상

남해대교가 가로지른 노량해협의 거센 물살은 남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산 증인이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노량 앞바다는 여수를 떠나 통영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수로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해상교통의 요지인데 그보다는 충무공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의 현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정유재란)이 시작된 곳으로, 또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무수한 유배객들이 자신의 적소(귀양지)로 건너오기 위해 나룻배를 탔던 한 맺힌 곳이기도 합니다.

- 남해섬으로 들어가려면 남해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은 창선삼천포대교(2003년), 노량대교(2018년)가 있어 남해로 오는 다리가 3개이다)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는 육지인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와 남해섬 최북한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두 노량마을을 잇고 있는 길이 660m의 다리로 남해섬의 관문이다.

남해 노량은 경상남도 남해도와 하동사이에 있는 나루터로 남해대교와 충렬사, 거북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충렬사는 노량의 아름다운 바다모습과 붉은색으로 단장되어 허공에 걸려 있는 남해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며 이곳은 매년 봄 벚꽃과 유채가 만발하여 한려수도의 봄 경치를 대표하

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된 노량대교)

노량(露梁)은 약 400여년 전부터 마을을 이룬 곳으로 지명유래는 '옛날 남해도로 귀양을 온 선비가 이곳에 이르러 노량앞바다의 물결이 마치 이슬방울이 모여 교량을 이룬 것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양을 떠나 유배당한 선비들은 비록 이슬 다리일망정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귀향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앞바다를 한걸음에 건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순신장군의 숨소리를 느낄 수 없는 현대인에겐 해마다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의 순국일에 열리는 승첩제(지역축제)만이 잊었던 그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노량 앞 바다에 띄워 놓은 거북선을 직접 타보며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는 것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북선은 한국해군이 충무공이순신의 나라사랑하는 얼을 길이 계승하기 위하여 이충무공전서와 옛 선박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고 노산 이은상 등 학계전문가 16명의 고증을 받아 1980년 1월 31일에 복원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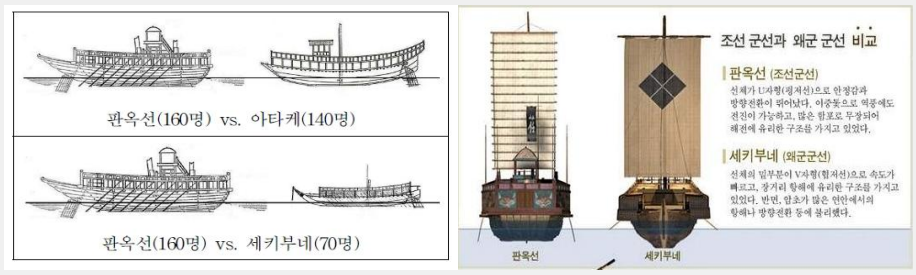
(오솔길을 걸으며)

오솔길을 걷다 보니 푸른나무가 참 많죠 낙엽송 보다는 늘 푸른 나무위주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은 떼려야 땔 수 없는데요 거북선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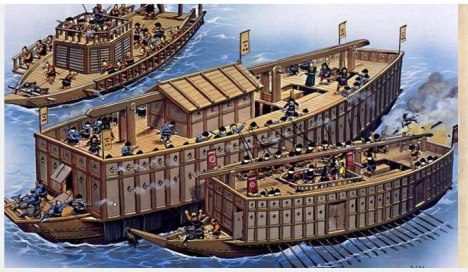
(교보재활용) - 거북선, 판옥선, 안택선, 학익진, 중요해전도 사진 자료등

우리나라 전투선인 판옥선과 돌격선인 거북선은 단단한 소나무와 참나무로 만들어진 반면, 일본의 안택선(아타케부네-대장선), 세키부네(전투선) 등은 참나무에 비해 덜 단단한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가 겹치는 이름새 부분에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소나무를 사용했지만 왜선은 철못을 사용하여 내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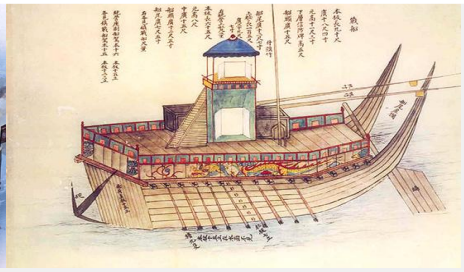
그래서 왜선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주력 공격 무기인 대포 같은 무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판옥선과 안택선·세키부네 비교)



(안택선과 세키부네)



(판옥선)

그리고 배의 구조는 밑면이 U자로 이루어져 있어 평평하여 방향을 쉽게 바꿀수 있지만 속력은 느립니다. 안택선은 밑면이 V자여서 방향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속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의 특징으로 봐서 일본은 백병전을 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활과 대포를 활용한 장거리 전투를 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돌격형 함선으로 적의 선단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접근 전을 펼치며 함포를 발사하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심이 박힌 거북 모양의 동갑판으로 갑판을 가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철로 두르면 배가 무거워지고 많은 양의 철을 필요로 함으로 주로 창이나 칼 등으로 갑판정상부를 만들고 보이지 않게 물을 적신 거적(짚으로 두툼하게 자리처럼 만든 물건)을 덮어 갑판의 무기를 숨기고 화재에 대해 대비 했다고 하는 설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거북선)



(판옥선)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갑판 위에 있는 '판옥'이라는 장대가 있어 판옥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노를 젓는 1층과 함포를 발사하는 2층으로 구성되어 전투에 효율적입니다.

학익진 전법은 한산도 대첩에 사용한 전법으로 말 그대로 학이 날개를 펴서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진입니다. 육상에서의 전법인데 실제로 육군 지휘까지 한 이순신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첨망대로 가는길)

(첨망대에 도착후)
오솔길을 걸어오신다고 힘드셨죠?
자 이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을 보통 전망대 또는 망대라고 부르는데 왜 첨망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멀까요? 그 이유는 관음포 앞바다를 그냥 내려다보지 말고 우러러 가슴속 깊이 새겨 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첨망대는 1991년에 2층 누각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이곳의 예전 지명은 '이내기끝'이라고 합니다.
첨망대에서 바라보면 노량해전의 전장이 한눈이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럼 노량해전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23전 23승이라는 전과, 무고한 투서로 인한 고난과 백의종군, 원균의 대패와 명량의 설욕 조선과 일본의 7년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노량대첩 그리고 이순신장군의 장렬한 전사. 한편의 영화 같았던 장군의 삶이 지금도 쪽빛 바다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관음포는 마치 항아리와 복주머니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적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는 돌아 나갈 수 없는 통발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첨망대)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지형과 물때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밖에 없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병법과 우리수군의 노력, 나대용과 거북선, 어영담과 물 때 등 모든 조건이 우리 조선을 구하게 한 것이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명나라를 정벌하려는 야심으로 조선을 침략한 7년 전쟁 중 이곳에서의 노량해전은 최후 최대 격전의 하나였어요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조선을 침략한 병사는 모두 철군하라'는 유언에 따라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 군의 남해의 소호군 사천의 시마즈군은 창선도에서 모여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순천의 고니시군은 퇴로가 차단되어 명나라 진린장군에게 뇌물을 바치고 퇴로를 열어줄 것을 간절히 원했으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1월 18일 창선도에 모여 있던 일본군은 거제도와 부산에 있던 왜군과 합세하여 500여척으로 순천 고니시군을 구하기 위해 노량해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11월 18일 밤 12시경 이충무공은 원수기 밑에서 청수로 손을 씻고 백단향

을 피운 다음 축전 기도하기를 '이 나라를 위해 적을 섬멸할 수 있다 하오면 죽어도 또한 여한이 없겠나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큰 별 하나가 떨어지니 모여 있던 군사와 장수들은 이상한 감회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11월 19일 새벽 2시쯤 전투가 시작되어 왜선 200여척을 격파하자 왜적은 패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50여척은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순신장군은 도망하는 왜적들을 보며 '한 놈도 살려 보내선 안된다' 라고 하시며 왜적을 쫓으시다가 왼쪽 가슴에 적의 유탄을 맞아 순국하시게 됩니다.
지난해 순국해역 위치를 조사했는데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관음포 해안 이내기끝과 어서리끝 사이의 해상으로 당시 전투상황과 조수, 지형지물, 충무공의 전략·전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문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순국 위치)

조사단은 노량해전에 관한 신빙성 있고 고증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문헌 중 당시의 전시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난중잡록과 은봉전사, 상촌집 등의 기록을 통해 이번 순국해역을 찾아냈습니다. 어서리와 이내기끝 사이 저쪽이 순국지점입니다. (손으로 위치표시) 그 동안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를 찾는 탐방객들이 관음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그 어디에선가 왜적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거뒀을 것이라는 추측만 해 왔지만 이번 순국해역 부표 설치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이충무공의 호국 혼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998년 12월 16일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추모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이충무공의 마지막 유언을 새긴 유언비를 입구에 웅대하게 세워 공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게 해줍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의 전쟁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긴 전쟁으로 부모님의 죽음 등 약해진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한산섬의 노래' (한산도가)를 지어 읊으면서 해전지위관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독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조정의 지원도 없이 명량해전 이후 빠른 속도로 수군의 전력을 회복하고 명나라 수군도록 진린장군과 함께 돌아가려고 남해일대로 총출동한 일본군

과 조선수군이 싸운 마지막전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와중에서도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어머님께 보내는 눈물겨운 편지와 '한산섬의 노래' 등 여러 편의 시와 시조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난중일기'가 그날의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7년을 한결같이 조선의 바다를 지키며 전 생애는 충과 효로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산도의 수루는 아니지만 관음포 앞 바다를 내려다보며 이순신장군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한산도가를 읊어 볼까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끓나니
(일성호가 - 한곡조의 피리소리)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순신장군이 어떤 장군이였는지 당신 조선을 침략한 왜장 중 한 사람인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렇게 가록을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순신이며 가장 흠모하고 숭상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바도 이순신이다. 그리고 명나라 장수 진린장군도 경천위지재요, 보천욕일지공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놀랄만한 재주가 있으며 나라와 임금에게 바친 큰 공적이 있다) - 유성룡의 징비록에 내용이 나와 있음 마지막으로 유명한 찬문 중에서 일본 동향평팔랑 제독은 나를 넬슨(영국)제독에 비하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 장군에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세력 확장에만 급급했던 지배 세력들과 혹시라도 왕권에 걸림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이순신을 미워했던 선조임금,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국가와 임금에게 충성한 이 충무공의 충절과 백성을 사랑하였던 마음과 행동은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태양 같은 존재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생태여행이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즐거우셨나요? 자연과 역사·문화자원 같은 것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불이나 훼손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길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한다면 오래오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공원도 보전을 잘하여 우리가 보는 이 모습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생태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길 바라며 조심히 돌아가세요~~~